

구석구석에 담긴 가르침의 부호 살살이 읽으며 '수행'

절집기행을 떠나며

‘현대불교’ 독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주부터 격주(隔週) 단위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절집기행’을 떠나게 되어 기쁩니다. 절집을 찾아가는데 어떤 단서가 붙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나 하는 의문이 없진 않지만, 굳이 ‘행복을 찾아가는’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절집에 가면 행복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아주 크고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절집은 법이 머무르고 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닦는 곳입니다. 절집은 과거의 집도 아니고 오늘의 집도 아니고 미래의 집도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집입니다. 절집의 구석구석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미어 있고 절집의 여기저기에 과거 수많은 스승들의 지극한 수행 흔적과 뜻 중생들의 염원과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절집기행 그 자체도 하나의 수행입니다.



진관사 추녀끝 풍경은 일몰의 황홀한 광경을 노래한다.

지혜장과 나팔수 부부 따라가기

절집기행은 가상의 부부인 아내 지혜장과 남편 나팔수씨를 따라 전국의 사찰들을 기행 하는 구조입니다. 지혜장은 불교신행을 오래한 40대 중년층의 불자이고 남편 나팔수씨는 종교에 그다지 관심 기울일 틈도 없이 바쁘게 살아 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쩌면 이 부부는 이 시대 많은 불자들의 자화상일 겁니다.

이 부부는 절집을 찾다니면서 절집에서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배워 나갑니다. 더러 단체 기행을 가기도 하고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가기도 하면서 절집의 구석구석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이 부부를 따라가면 우리도 어느새 절집에 드러난 불교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15년 전 즈음, 사찰 답사가 유행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룹답사보다는 개인적으로 답사를 하고 소감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 당시 사찰답사를 주도하고 안내했던 책들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길이 지금은 없어졌고 그때는 없던 건물들이 지금은 여러 개 들어섰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성보는 물론이고 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세태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때 안내하지 않은 새로운 가치들도 아직 부지기수로 남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는데, 절집인들 고쳐보여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사찰마다 ‘불사 바람’이 불어서 뜯어 고치고, 넓히고, 새로 지으며 절집의 지형도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그

래서 오늘의 절집을 오늘의 감성과 시각으로 공부할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석구석 스민 교리 배우는 행복

절집기행의 가장 큰 행복은 절집에 드러난 가르침을 읽는 것입니다.

절집은 그냥 지어졌 집이 아닙니다. 살기위해 지은 집이 아니라 수행과 교화라는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절집의 기본 구조와 다양한 장엄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상징부호들입니다. 법당이라는 건물, 그 안의 수미단, 그 위의 불상, 그 뒤의 탱화, 그 속의 내용들. 이렇게 법당을 찬찬히 분석해 보면 한 권의 교리 서적이 됩니다.



절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절집에 스민 불교를 공부하는 모 부부의 모습.

절집의 구조와 드러난 상징부호들을 통해 드러난 가르침을 읽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자들이 그저 “절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절

집 그 자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설명해 주는 스님이나 포교사들도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사찰 건축이 현대화 바람을 타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상징 기능까지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 절집의 진면목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말입니다.

절집에 스민 역사를 읽으면 행복합니다.

절집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절집의 구석구석에는 우리민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절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이고, 민족의 흥망성쇠가 절집의 그것으로 응축되어 있으니 절집을 찬찬히 읽으면 책에 나오지 않는 역사까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생멸하고 시대는 변화를 거듭하지만 절집에는 그 잔잔한 숨결까지 남아 있습니다. 제왕에서 무명의 백성



아미타부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절집기행의 화두다. 부석사 무량수전.

에 이르기까지 절집을 찾아 왔고 항상 문을 열어두었던 절집에는 그들의 애환과 그들이 이룩한 문화 예술이 켜켜이 스미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집을 읽

는 일은 불자와 비불자를 구별할 일이 아니고, 이 땅에 몸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입니다. 절집에서 우리 역사의 숨결을 읽는 동안,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몸은 오늘의 것도 어제의 것도 내일의 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절집에 승화된 예술을 느끼는 것도 행복입니다.

절집은 역사만큼이나 분명한 예술의 전승기능을 합니다. 절집에 반영된 가르침과 역사 그 자체가 최고의 예술적 형상으로 승화되어 전하기 때문입니다. 불교 전래 이래 오늘날까지 이어진 유형과 무형의 불교예술은 책이나 문서와 더불어 절집의 조형

오랜 세월의 흔적 담은 절집

민족의 숨결·역사가 스민 곳

들을 통해 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의 양식과 가람의 배치, 불탑과 승탑(부도) 등 석조물의 양식적 변화, 회화의 양식과 기법 변화, 영산재 등 무형문화재의 전승 내역 등이 절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집을 보면 예술이 보이고 그 예술의 맥박은 바로 우리들의 혈액을 뛰게 하는 우리의 맥박입니다. 절집을 읽으면 내 맥박의 박자를 느끼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절집에 투영된 ‘나’를 읽으면 행복해 집니다.

일이 안 풀리거나 화가 날 때 머리 쥐고 절간에 갈까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머리는 왜 쥐고 절간에는 왜 간다는 걸까요? 잘 모르겠지만, 세간의 고통스런 삶을 떠나 출세간의 구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을 그렇게 표현 하는 겁니다. 뭐, 더러는 절간에 가면 무위도식할 것 같다는 막연한 동경심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세간 사람에게 있어 절집은 삶의 고난을 경화시켜주는 장소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절집 기행은 막연한 동경심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절집 구석구석에서 만나는 가르침과 역사와 예술의 향기가 어제의 나를 느끼게 하고, 오늘의 나를 보게 하고, 내일의 나를 구축하게 합니다. 절집에 투영된 나의 진면목을 읽는 순간, 더 이상의 행복은 없습니다.

절집을 기행 하는 동안 행복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절집은 자신의 존재의미를 비추주는 거울이고, 일상에 지친 몸을 재충전시켜주는 대용량 발전소입니다. 수행자에게는 깨침의 동력을 만들어 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심과 원력의 힘을 길러 올리게 합니다. 죄를 참회하는 사람에게 새 삶의 힘을 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성취의 신념을 심어줍니다. 절집 구석구석을 이해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채워지는 활기(活氣)를 느끼게 됩니다. 무한의 에너지가 몸을 채우고 마음을 뜨겁게 해 주는 것입니다. 절집에서 듣는 풍경소리, 툇마루에서 느끼는 바람결, 한 모금의 시원한 석간수, 청량한 독경소리, 천둥 같은 범문, 조붓한 숲길과 신령스러운 기암괴석들, 이 모든 것이 중생을 향해 베풀어 놓은 무량한 공양인 것입니다. 그 공양을 맛있게 먹으면 절집기행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글=임연태(시인 본지논설위원) 사진=이승현(시인 사진작가)



백초귀장술

조상을 제대로 뵈으면 천도재 권하기가 쉽습니다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베스트셀러 진입! 귀신뽀는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쓱쓱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著者 白超 백초스님 ①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② 신국판/양장본/712쪽/정가 120,000원

白超律曆學堂 입금 계좌 **023-02-500940** 예금주: 임현주

전화 [02]3667-4446, 010-3813-4443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 DX-707 스테레오 마이크
- 법당 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고성능 탁상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